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펠리아 꼬르푸스 수녀님이

Sr OPHELIA CORPUS

오늘, 1926 년 1 월 31 일 오전 4 시 15 분에

괘존시티에의 한나공동체에서(필리핀) 58 세(수도생활 29 년)로

이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성경소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온 오펠리아 수녀의 제자적 삶과,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사목 직무 안에서 주님의 빛을 찾고 증거해 온 여정을 드러내 줍니다.

오펠리아수녀는 1967 년 4 월 25 일 필리핀 라우니온, 바크노탄 비탈락에서 태어났으며, 1968 년 5 월 8 일 바크노탄 성 미카엘 대천사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은 7 남매 가운데 여섯째로, 신앙이 깊고 근면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1993 년 6 월 7 일 이무스(Imus)-카비테에서 수도회에 입회하였고, 1994 년 5 월 14 일 케손시티-뉴 마닐라에서 수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1996 년 6 월 29 일 케손시티-뉴 마닐라에서 첫 서원을 하였으며, 2002 년 5 월 15 일 같은 곳에서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오펠리아수녀는 종신서원 허가를 청하는 청원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의 유기서원 기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내가 겪어온 여러 어둠과 다양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의 신앙과 관계를 더욱 깊이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펠리아수녀는 기도의 사람이며, 공동체와 수도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지닌 수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이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지닌 부지런한 사람이며, 큰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고, 관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언제나 기꺼이 봉사할 줄 아는 자매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목에 탁월한 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며 예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어 전례 예술 분야에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되어 왔고,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여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고 정성스러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줄 압니다. 공동체의 자매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펠리아수녀는 1996 년 첫 서원 후 탄사(Tanza)-카비테로 파견되어 교리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여러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교리 사도직과 더불어 청소년 사목과 사목 봉사자 양성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녀가 봉사한 공동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8 년 파라냐케(Parañaque), 1999 년 케손시티(Quezon City), 2002 년 산 페르난도-라우니온(San Fernando - La Union), 2005 년 푸에르토 프린세사(Puerto Princesa), 2007 년 이무스-카비테(Imus - Cavite), 2009 년 알라미노스-팡가니산(Alaminos-Pangasinan), 2015 년 탄사(Tanza), 2016 년 케손시티, 2019 년 이무스, 그리고 2021 년 보롱간(Borongán)입니다.

2023 년 7 월, 청소년 사목에 전적으로 투신하고 있던 중 장(腸) 전이성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우 힘든 치료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펠리아 수녀는 이 긴 치료의 여정을 큰 용기와 치유에 대한 강한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오펠리아 수녀에게뿐 아니라, 사랑과 헌신, 관대함으로 그녀를 돌보았던 자매들에게도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펠리아 수녀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적 돌봄을 제공해 준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 시기까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여정을 그녀와 함께 살아낸 자매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자매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펠리아 수녀는 개인적인 위생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동체의 청결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여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곤 하였습니다. 오펠리아 수녀의 손은 부지런함과 성실한 노동, 그리고 헌신임을 증언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였고, 그것이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병으로 인해 이미 통증과 불편함을 겪고 있던 때에도, 자신을 돌보는 이들을 오히려 걱정하며 그들의 안부를 살폈고, 다른 병든 자매들의 소식도 자주 물었습니다.

오펠리아 수녀와 함께한 2 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그녀의 손에서 창조하는 힘을 보았고, 귀 기울여 듣는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봉사하였고, 불평 없이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의 믿음과 고통 가운데 보여 준 인내가 모두 살아 있는 기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용서를 청하고, 모든 자매들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펠리아 수녀를 성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충실한 빠스또렐라로 살아온 수녀님의 삶과 소명이라는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청소년 사목을 사랑하였던 사랑하는 오펠리아 수녀님,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계획에 응답하고, 어른들 안에서 참된 지지와 동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2026 년 1 월 31 일, 로마
성 요한 보스코 축일